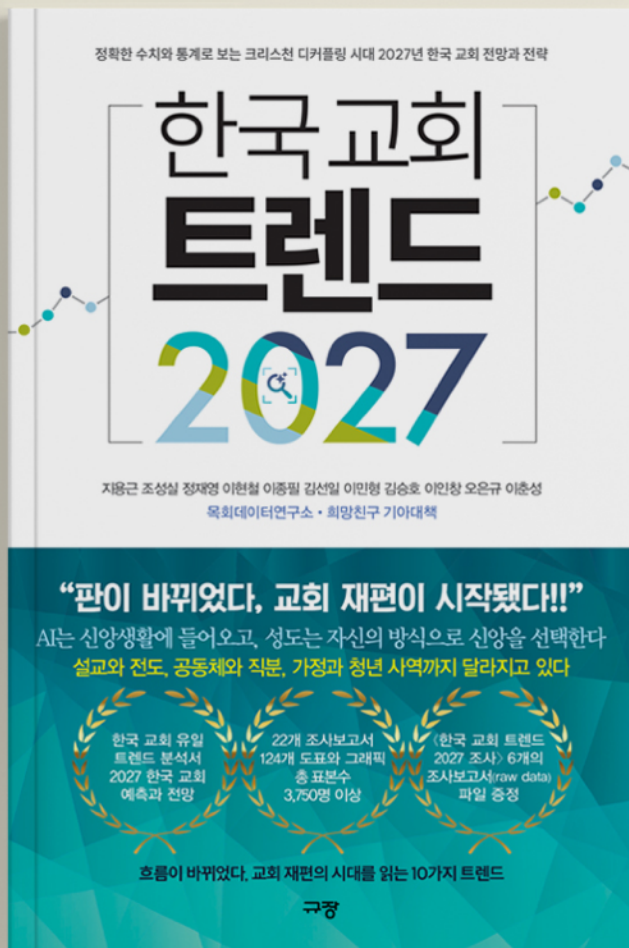




numbers

vol. 352 | 2026.10.6.

「한국교회 트렌드 2027」 Brief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통계

“판이 바뀌었다, 교회 재편이 시작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월 28일(월)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신학교 교수, 언론인, 목회자, 조사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 TFT를 구성·기획하여 집필한 것으로 2022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처음 펴낸 후 이번이 다섯 번째 책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을 위하여 담임목사, 기독교인, 이혼·재혼자 기독교인, 청년부 사역자 등을 대상으로 3,750명의 대규모 표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을 10개 주제에 담았다.

이번 <넘버즈 352호>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의 10개의 주제를 핵심 데이터 중심으로 간략하게 훑어보는 요약편으로 구성하였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7」 10개 키워드

- | | |
|---------------|---------------|
| 01. 프롬프트 크리스천 | 06. 전도 리포메이션 |
| 02. 노 타이틀 성도 | 07. 느슨한 공동체 |
| 03. DIY 신앙 | 08. 대 은퇴 시대 |
| 04. 아날로그 영성 | 09. 두 번째 가정 |
| 05. 리얼리즘 설교 | 10. 고밀도 청년 사역 |

※ 조사개요 (대상자별)

1. 기독교인 1차(DIY 신앙/아날로그 영성/느슨한 관계/프롬프트 신앙/직분 기피 현상) :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6.06.02.~06.10.
2. 기독교인 2차(두 번째 가정 사역/목회자 은퇴/설교/전도/청년 사역) :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만 19~39세 청년부 예배 출석자 300명, 온라인 조사, 2026.06.09.~06.15.)
3. 이혼·재혼자 기독교인 :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중 이혼·재혼 경험 있는 자 200명, 온라인 조사, 2026.06.17.~06.22.
4. 목회자 1차(DIY 신앙/아날로그 영성/느슨한 관계/프롬프트 신앙/직분 기피 현상) :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6.06.04.~06.09.
5. 목회자 2차(두 번째 가정 사역/목회자 은퇴/설교/전도/청년 사역) :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6.06.12.~06.19.
6. 청년부 사역자 : 한국교회 청년부 사역자 250명, 온라인 조사, 2026.06.17.~0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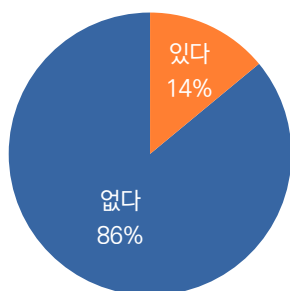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 크리스천’이란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을 인공지능(AI)에게 먼저 묻고, 그 답변을 성경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크리스천을 의미한다. 이런 프롬프트 크리스천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AI가 목회자를 대체했다거나 신앙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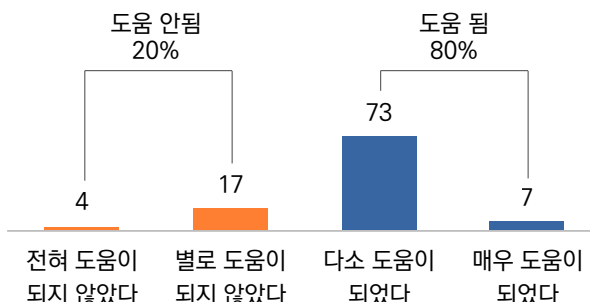
AI 신앙 상담 경험 성도 14%

- AI에게 신앙 상담(궁금한 점이나 고민 등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 성도는 전체 성도의 14%였고, 상담 경험자 중 80%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AI 신앙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AI 신앙 상담 경험 (성도, N=1000)



[그림] AI 상담 효용성 (AI에게 신앙 상담 받아본 성도, N=1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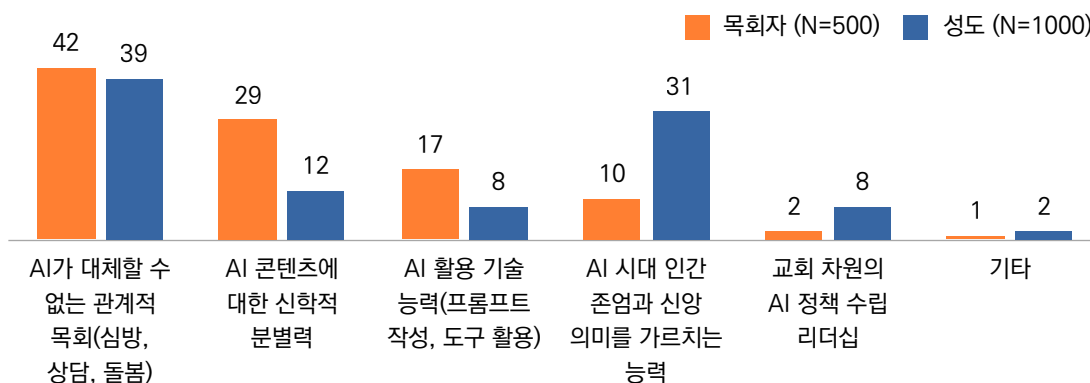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I 시대 목회자 필수 역량 1위, 목회자·성도 모두 ‘관계적 목회’!

- 목회자의 역할을 침범하는 AI 시대에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1순위로 목회자(42%)와 성도(39%) 모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관계적 목회(심방, 상담, 돌봄)’를 꼽았는데, 이는 AI의 비중이 커질수록 오히려 관계맺음과 돌봄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편, 성도가 ‘인간 존엄과 신앙 의미를 가르치는 능력’(31%)을 2위로 꼽은 것도 AI 시대일수록 목회자가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AI 시대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역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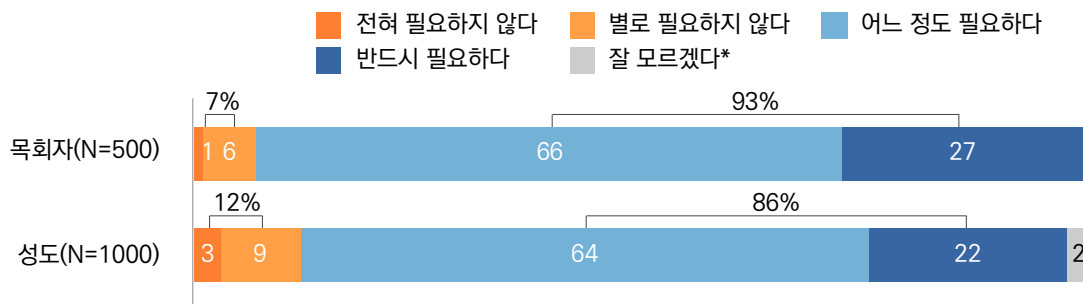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으려는 성도가 감소하면서 직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로, 안수집사 등 직분을 맡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 과정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더라도 미루거나 고사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직분 없는 ‘노 타이틀 성도’ 상태를 원하는 것이다.

목회자·성도 대다수, 직분제도 필요성에 절대 공감!

- 교회 직분 제도에 대해 목회자의 93%, 성도 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 모두 압도적인 비율로 직분제도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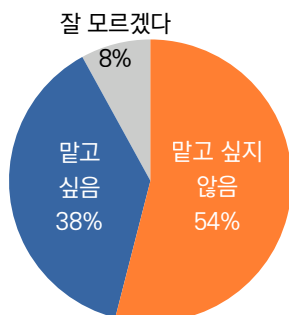
[그림] 직분 제도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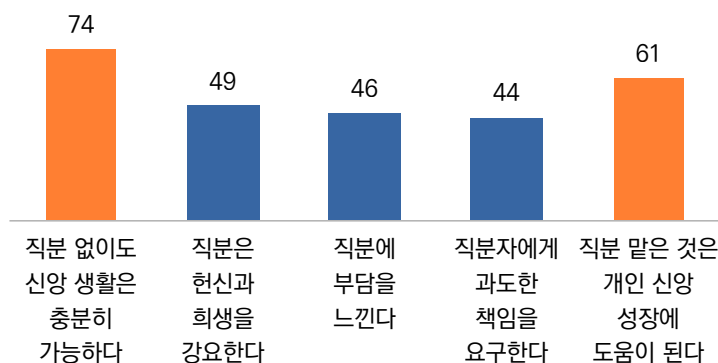
성도 절반 이상, ‘내가 직분 맡는 건 원치 않아’

- 직분 제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막상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질 경우 수락할 의향이 있는 성도는 38%에 그쳤다. 반면 성도 절반 이상인 54%는 ‘맡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 성도들은 직분이 신앙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61%) 직분이 없어도 큰 문제없다(74%)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직분에 대한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었으며(46%), 이러한 인식이 직분 기피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직분 부여 시, 수락 의향 (성도, N=1000, 4점 척도)



[그림] 직분에 대한 태도_‘그렇다’ 요약 (성도, N=1000, 5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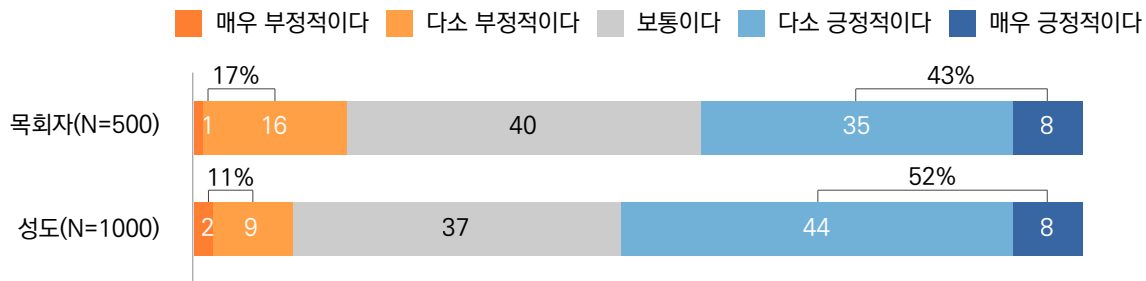


DIY(Do It Yourself) 신앙은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이 아닌,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필요와 삶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새로운 실천 방식이다. 각자에게 맞는 '신앙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의 DIY 신앙, 목회자·성도 모두 긍정적 평가가 우세!

- 성도 개인이 교회 외부에서 신앙 관련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DIY 신앙'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인식(목회자 43%, 성도 52%)이 높게 나타났다.
- 목회자는 성도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비율에서 높게 응답하여 목회자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도의 DIY 신앙* 이용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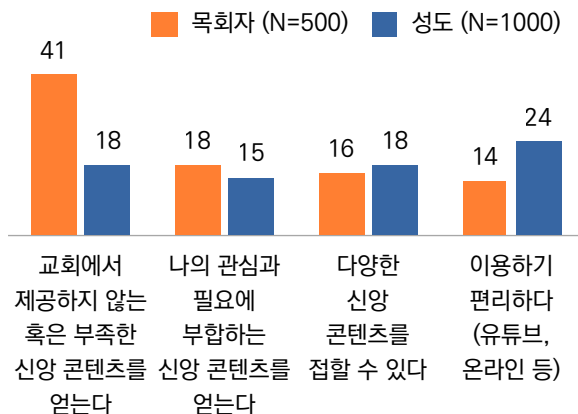


*DIY신앙 : 성도 개인이 교회 외부에서 신앙 관련 콘텐츠(설교, 신앙/성경 강의 및 공부, 간증, 성경 읽기 및 묵상 등)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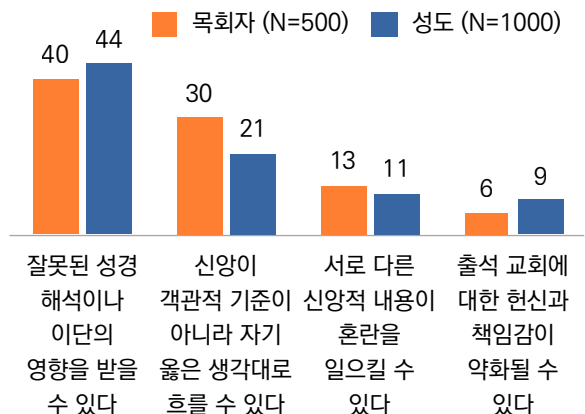
DIY 신앙의 장점, '교회 부족한 콘텐츠 보완'!

- DIY 신앙의 긍정적 측면으로 목회자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는 혹은 부족한 신앙 콘텐츠 획득'(41%)을, 성도는 '이용 편리성'(24%)을 각각 1순위로 응답했다.
- 성도들이 꼽은 '이용 편리성'도 신앙 콘텐츠 획득을 위한 편리성이므로 '콘텐츠 보완'이 DIY 신앙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 반면, DIY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목회자(40%)와 성도(44%) 모두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이단의 영향'을 꼽았다. 이는 DIY 신앙이 지닌 자율성의 이면에 신학적 검증과 분별을 위한 교회의 지도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성도의 DIY 신앙의 긍정적 측면 (목회자 상위 4개, %)



[그림] 성도의 DIY 신앙의 문제점 (목회자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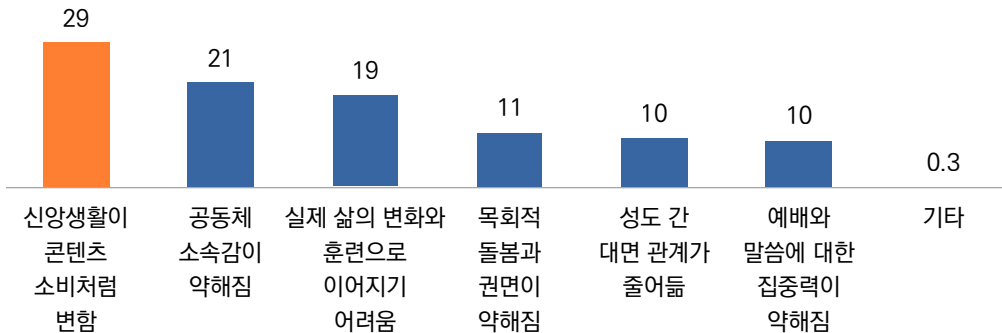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가 신앙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신앙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풍족해졌지만, 성도들의 영성은 오히려 빈곤해졌다. 이에 느리더라도 깊은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몸을 사용해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영성’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방식 신앙생활의 한계, 참여하지 않고 ‘소비’하게 된다!

- 디지털 방식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콘텐츠 소비처럼 변한다’(29%)는 데 목회자들은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동체 소속감이 약해지고’(21%), ‘실제 삶의 변화와 훈련으로 이어지기 어렵다’(19%)는 등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 결론적으로 디지털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도가 콘텐츠 소비 자체에 만족하게 만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약화와 교회의 침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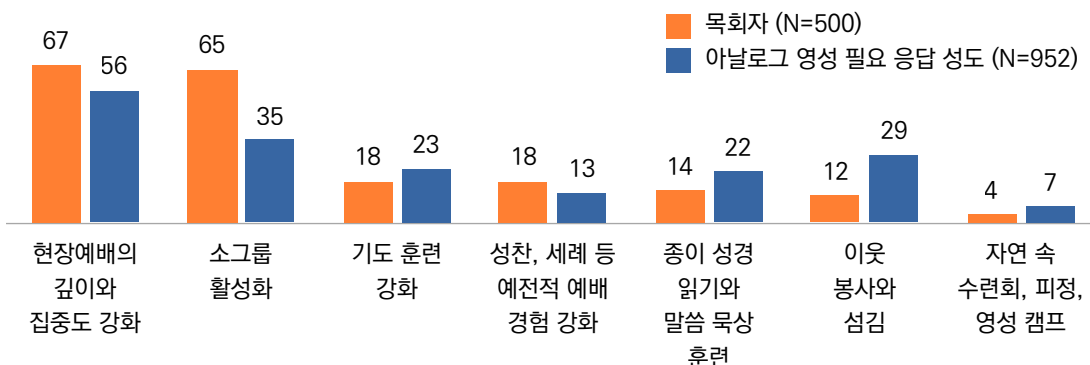
[그림] 디지털 방식 신앙생활의 한계 (목회자, N=500, %)



아날로그 영성 회복을 위한 교회 역할, ‘깊이 있는 예배/소그룹/이웃 봉사’!

- 아날로그 영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로 목회자와 성도 모두 ‘현장예배의 깊이·집중도 강화’(목회자 67%, 성도 56%)와 ‘소그룹 활성화’(65%, 35%)를 1, 2순위로 꼽았다.
- 다만 차순위에서는 목회자가 ‘기도 훈련’(18%)과 ‘예전적 예배’(18%) 등 대내적 신앙 강화에 집중한 반면, 성도는 ‘이웃 봉사와 섬김’(29%)을 높게 응답했다. 아날로그 영성이 교회 내부를 넘어 이웃을 향한 현장 실천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대를 드러낸다.

[그림] 아날로그 영성 회복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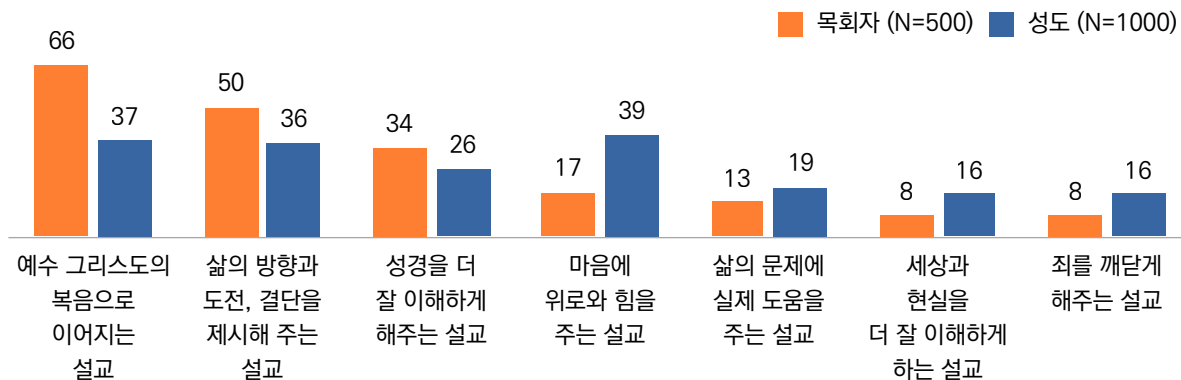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해석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서도, 그 말씀(설교)이 자신의 실제 삶- 불안과 상실, 인간관계 등-에 구체적으로 닿길 원한다. 이러한 흐름을 ‘구속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복음을 깊게 전하되 삶에는 가깝게 다가가는 설교가 한국교회가 요구받는 새로운 설교 방향이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복음’과 ‘결단’ 촉구 설교를 중요하게 여김!

- 목회자는 주로 전하는 설교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설교’(66%)와 ‘삶의 방향과 도전, 결단을 제시하는 설교’(50%)를 각각 1, 2위로 꼽았다.
- 반면 성도는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설교’(39%) 외에도 ‘복음으로 이어지는 설교’(37%), ‘결단을 제시해 주는 설교’(36%) 등 다양한 설교 주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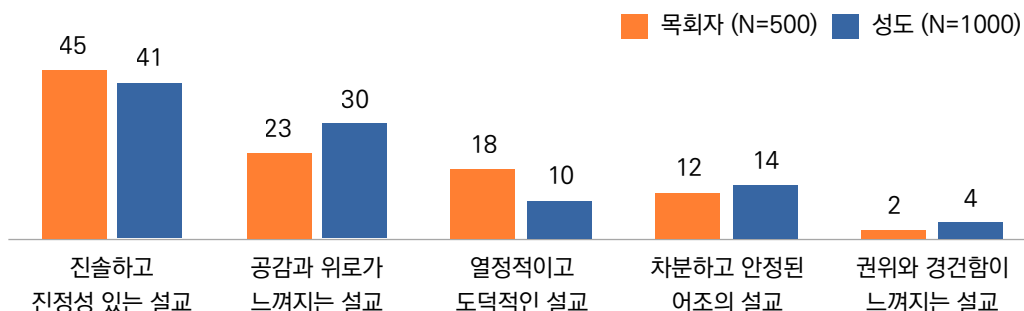
[그림]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내용(목회자) vs 가장 기억 남고 은혜 받은 설교 내용(성도) (1+2순위, %)



목회자/성도 모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설교’ 선호!

- 목회자가 지향하는 설교와 성도가 선호하는 설교 모두 1위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설교’(목회자 45%, 성도 41%)였으며, 2위는 ‘공감과 위로가 느껴지는 설교’(23%, 30%)였다. 진정성이 담긴 말(설교)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목회자가 지향하는 설교 스타일 vs 성도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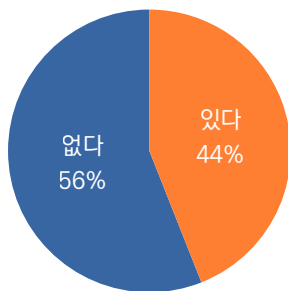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이해해온 전도 방식 자체가 한계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의 전도는 복음을 삶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이동(리포메이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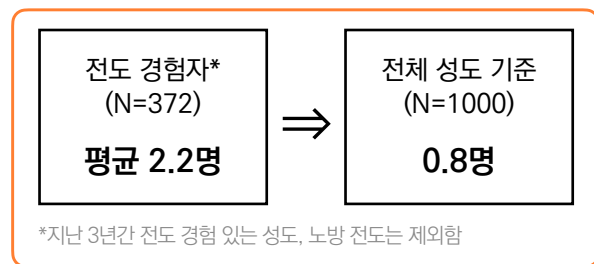
성도, 최근 3년간 1명에게도 전도 안해!

- 최근 3년간 전도 경험이 있는 성도는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4%로 조사됐다.
- 한편, 최근 3년간 전도 경험 있는 성도의 전도·초청 인원은 평균 2.2명이었다. 이를 전도 경험이 없는 성도까지 포함한 전체 성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0.8명으로, 최근 3년간 성도 1명당 전도 인원이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림] 최근 3년간 전도 경험 (성도,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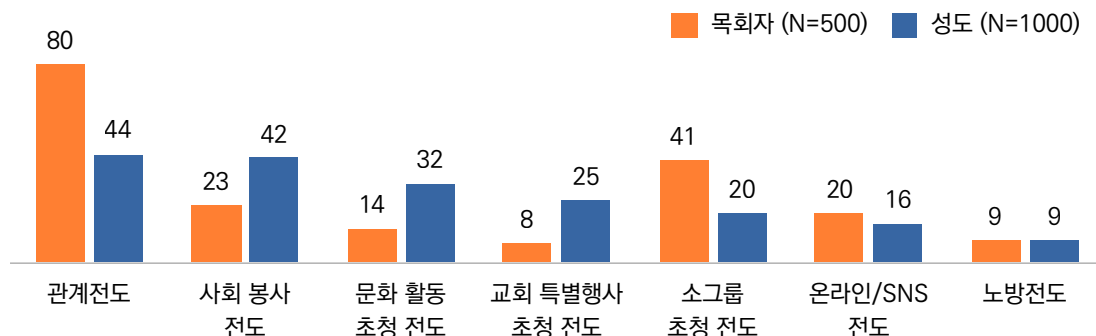
[그림] 최근 3년간 전도/초청 인원



향후 집중해야 할 전도 방법, 성도는 ‘관계 전도’와 ‘사회 봉사 전도’ 투트랙!

- 향후 교회가 집중해야 할 전도 방법에 대해 목회자는 ‘관계 전도’(80%)를 압도적 1위로 꼽았고, 이어 ‘소그룹 초청 전도’(41%)를 지목했다.
- 반면, 성도는 ‘관계 전도’(44%)와 ‘사회 봉사 전도’(42%)를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해 시각차를 보였다.

[그림] 향후 집중해야 할 전도 방법 (1+2순위, 성도 기준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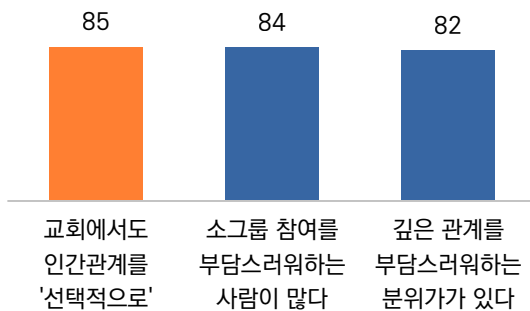


오늘날에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만 선택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모임이 제한되면서 성도 사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느슨해졌고, 팬데믹 이후에도 상당수 교회는 과거와 같은 결속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도들의 교회활동 추세, 인간관계 선택적·소그룹 참여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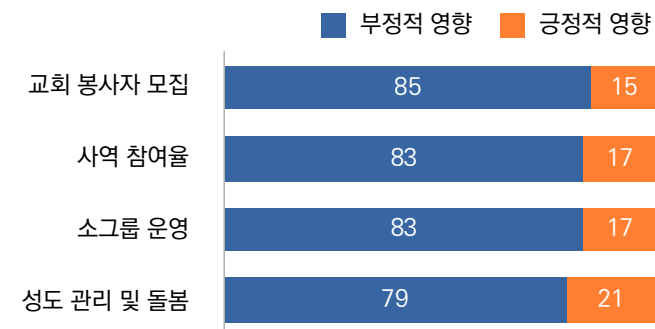
- 최근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85%), '소그룹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84%)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 성도들 사이에서 깊은 공동체적 밀착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탈관계적/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 또한 교회 내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이 교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목회자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응답했다.

[그림] 최근 성도들의 교회활동에 대한 인식
(성도, N=1000, '다소+매우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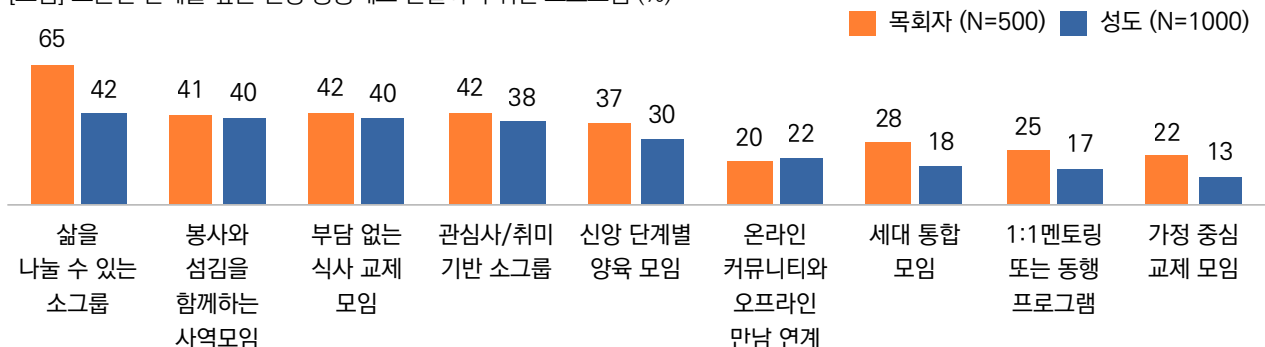
[그림] 느슨한 관계가 교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 (목회자, N=500, %)



느슨한 관계를 신앙 공동체로 연결하려면, 다양한 소그룹이 효과적!

- 느슨한 관계를 깊은 신앙 공동체로 연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회자와 성도 모두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다만 목회자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65%), 즉 전통적인 소그룹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성도는 '신앙 소그룹'(42%) 외에도 '봉사와 섬김을 함께 하는 사역 모임'(40%), '부담 없는 식사 교제 모임'(40%), '관심사/취미 기반 소그룹'(38%)을 꼽아 목회자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느슨한 관계를 깊은 신앙 공동체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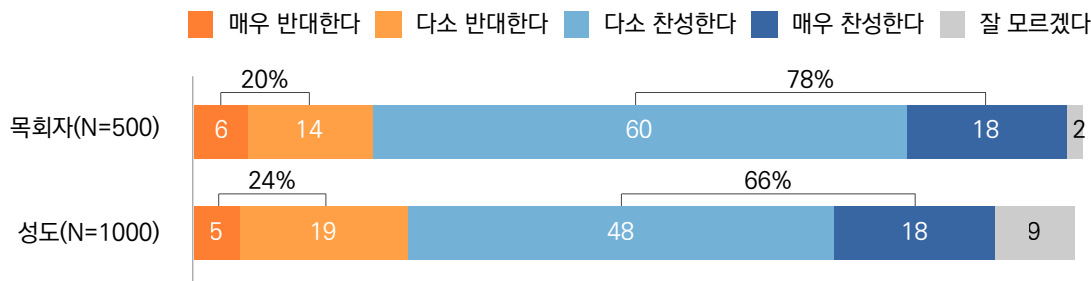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들이 은퇴 연령에 이르면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10년간 유례없는 리더십 교체기를 맞게 된다. 목회자에게 은퇴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교회에는 재정과 리더십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은퇴와 관련한 교회 내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은퇴 목사 퇴직금 외 경제적 예우, 목회자 78%·성도 66% '찬성'!

- 은퇴 목사에게 퇴직금 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목회자(78%)뿐 아니라 성도(66%) 역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며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 성도 역시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한 은퇴 목회자에 대한 경제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 은퇴 목사 퇴직금 외 경제적 예우에 대한 의견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경제적 예우 수준은 목회자가 성도보다 다소 높게 기대!

-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 예우 필요성에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공감대를 보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목회자 24%, 성도 22%로 비슷했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면 된다'는 목회자(47%)가 성도(35%)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 즉, 경제적 예우 자체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대체로 동의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보다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퇴 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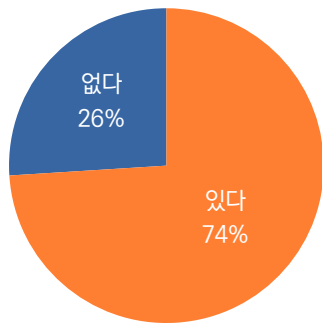


이혼·재혼·한부모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한국교회 가정 사역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두 번째 가정 사역’, 즉 이혼·재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사역은 교회에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를 던진다. 상처를 극복할 자리를 찾아 교회로 향하는 이혼·재혼 당사자들을 품고, 돌보며, 회복으로 다가서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 가정 사역은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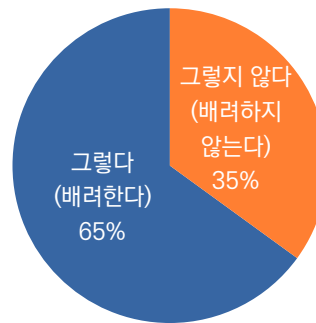
이혼·재혼 가정 3곳 중 1곳, ‘교회 배려 충분하지 않아’!

- 전체 교회의 74%에 이혼·재혼 가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재혼 성도의 35%는 교회가 자신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전통적 가정관 중심의 설교나 목회 관행 속에서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의 사역 구조 및 언어 표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교회 내 이혼·재혼 가정 여부
(목회자,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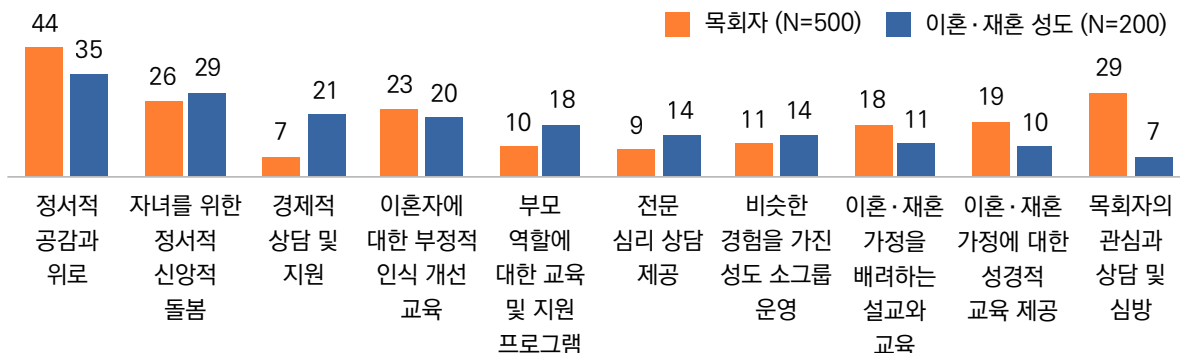
[그림] 이혼·재혼 가정에 대해 교회가 충분히 배려하는지 여부
(이혼·재혼 성도, N=200, 4점 척도)



이혼·재혼 성도, ‘정서적 공감’(기본) + ‘자녀 돌봄·경제적 지원’ 원해!

- 이혼·재혼 가정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혼·재혼 성도들은 ‘정서적 공감과 위로’(35%)를 1위로 꼽았으며, 이어 ‘자녀를 위한 정서적/신앙적 돌봄’(29%), ‘경제적 상담 및 지원’(21%) 순으로 응답했다.
- 목회자 역시 1위로 ‘정서적 공감과 위로’(44%)를 선택해 성도의 가장 큰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성도가 필요한 ‘경제적 상담 및 지원’목회자 7%, 성도 21%)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 또한 목회자가 중요하게 여긴 ‘목회자의 관심과 상담 및 심방’(29%)에 대해서는 성도는 7%만이 원하고 있다. 이는 성도가 목회자의 직접적 개입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혼·재혼 가정 사역에 있어 정서적 공감을 기본 바탕으로 두되, ‘자녀 돌봄’과 ‘경제적 지원’ 등 성도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필요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이혼·재혼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1+2순위, 이혼·재혼 성도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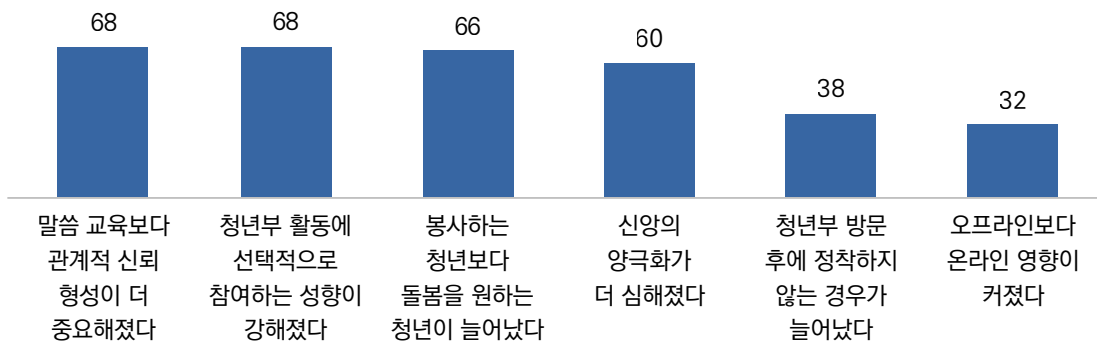


청년 사역을 말할 때 대개 ‘위기’를 언급하지만 모든 교회 청년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청년 사역의 핵심은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예배의 깊이, 관계의 개방성, 삶을 해석하는 말씀, 환대와 실제적인 돌봄 등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밀도 청년 사역’에 관해 살펴본다.

청년들, ‘신뢰’와 ‘돌봄’을 원한다!

- 최근 3년간 교회 청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말씀 교육보다 신뢰 형성’(68%)을 중요시하고 ‘돌봄을 원하는 청년’(66%)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나, 교회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핵심층 청년과 참여를 꺼리는 주변층 청년 간 신앙수준의 괴리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최근 3년간 교회 청년의 변화_‘다소+매우 그렇다 비율’* (청년부 사역자,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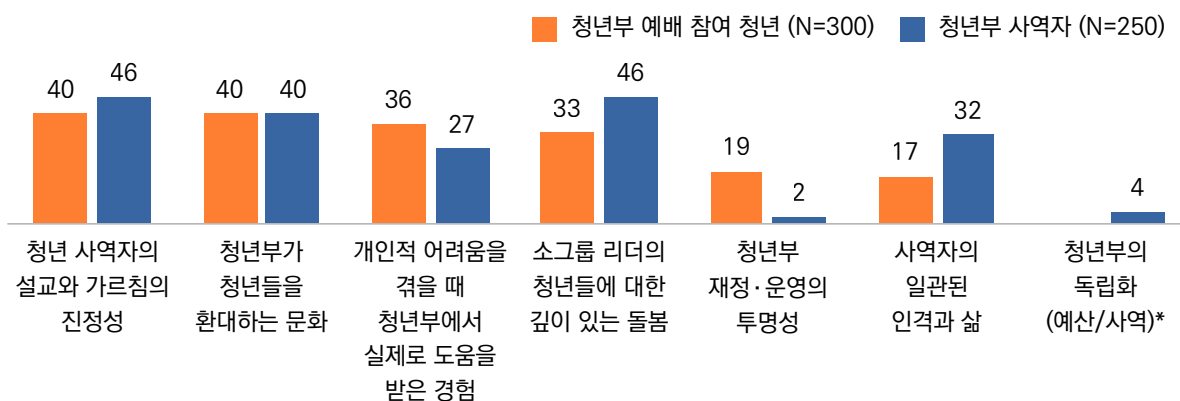


*4점 척도

청년부 신뢰의 계기, ‘진정성 있는 설교·환대·돌봄’!

- 청년들이 청년부에 애정과 신뢰를 갖게 되는 핵심 계기로 청년들은 ‘청년 사역자의 설교와 가르침의 진정성’(40%)과 ‘청년들을 환대하는 문화’(40%)를 공동 1위로 꼽았다. 이어 ‘개인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 도움을 받은 경험’(36%), ‘소그룹 리더의 깊이 있는 돌봄’(33%) 순이었다.
- 청년부 사역자 역시 ‘설교와 가르침의 진정성’(46%), ‘소그룹 리더의 깊이 있는 돌봄’(46%), ‘환대하는 문화’(40%)를 상위권으로 꼽아 주요 요인에 대해 청년들과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그림] 청년들이 청년부에 애정과 신뢰를 갖게 하는 계기 (1+2순위, %)



*청년 성도 설문에는 ‘청년부의 독립화(예산/사역)’보기 없음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저자 소개 및 출판 기념회

저자 소개

대표저자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주)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01. 프롬프트 크리스천 | 조성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수

02. 노 타이틀 성도 | 정재영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03. DIY 신앙 | 이현철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교수

04. 아날로그 영성 | 이종필 | 세상의빛교회 담임목사, 칼빈대학교 교수

05. 리얼리즘 설교 | 김선일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06. 전도 리포메이션 | 이민형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07. 느슨한 공동체 | 김승호 |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08. 대 은퇴 시대 | 이인창 |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굿뉴스 기자

09. 두 번째 가정 | 오은규 | 양문교회 담임목사

10. 고밀도 청년 사역 | 이춘성 |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출판 기념회 사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9호 \(2026년 10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22대 국회 평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찬반

[통일 필요하다는 국민 39% 불과... '현재대로가 좋다' 역대 최고\(종합\)](#)

연합뉴스_2026.9.28.

사회 일반

[작년 사망자 수 역대 2위...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

연합뉴스_2026.9.22.

[7월 출생아 2만4천명, 7년 만에 최대...연간 누적 17만명 넘어](#)

연합뉴스_2026.9.23.

['그냥 쉼' 4050 작년 67만명, 청년까지 합치면 128만명](#)

동아일보_2026.10.1.

["초등교사 10명중 7명 우울증-PTSD 겪어"](#)

동아일보_2026.10.1.

[1인 가구 46.2% "속마음 나눌 상대 없다"...60대는 노후 준비 '취약'](#)

동아일보_2026.9.22.

[내 개인정보 활용, 어디까지 허용?... "공익 목적엔 찬반 '반반'"](#)

연합뉴스_2026.9.30.

[울추석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42% ↑ ...하루 평균 1천294건](#)

연합뉴스_2026.9.27.

[\[2026년 하반기 사회기관 역할수행평가\] 대다수 사회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1년 전 수준으로 하락](#)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9.22.

아동 · 청소년 · 청년

[단독 "면접서 백수로 보일까 무서워요"... 대학 졸업유예자 4년 새 45% 급증](#)

한국일보_2026.9.29.

[대학생 생활비 대출 2년새 33% 늘어 8천500억원...연체액도 31% ↑](#)

연합뉴스_2026.10.1.

[\[단독\] 고립 벗어나려 상담센터 찾았지만... 은둔 청년 절반, 결국 지원망 이탈](#)

국민일보_2026.9.29.

[감기약 40알 꿀꺽한 10대... 친구와 화상통화하며 먹기도](#)

국민일보_2026.9.29.

[청년·저소득층일수록 "한국 사회 불공정"...10여년간 인식 악화](#)

연합뉴스_2026.10.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10대 마약의딿], 연합뉴스

- ① [흡연보다 흔해졌다…"친구 1명이 10명 중독" _2026.9.14.](#)
- ② ["돈 없어? 10개 팔면 2개 줄게"…드라퍼 된 아이들 _2026.9.14.](#)
- ③ [치료할 곳도 없다…폭행 겪는 의료진은 '번아웃' _2026.9.21.](#)
- ④ ['수면시간' 전략한 예방교육…"공포교육으로 한계" _2026.9.21.](#)

경제 · 기업

- [고소득 가구 경상소득, 저소득 가구의 8.5배… 아득한 소득 격차](#)
국민일보_2026.10.1.
- [“그때 집 샀어야지” 친척 단골 잔소리…10년 집값 따져보니](#)
중앙일보_2026.9.26.

국제

- [폭자는게 더 위험?…사망률은 수면 6시간 이하보다 9시간 이상이 높아](#)
문화일보_2026.9.25.
- [러닝족 다 어디갔나…2030 건강 ‘빨간불’ 담배 늘고 운동 줄었다](#)
중앙일보_2026.9.30.
- [고기 더 먹고 운동 더 하는 70대 이상, 10년새 확 늘었다](#)
조선일보_2026.10.4.

기독교 · 종교

- ["교회 안 나가는 개신교 신자 증가…'자기주도적 신앙' 선호"](#)
연합뉴스_2026.9.28
- [“내 비밀 들어줄 어른 없어”… AI 친구 찾는 외로운 다음세대](#)
국민일보_2026.9.27.
- [美 개신교인 과반 “성경 잘 아는 거 같은데…혼자 읽으면 이해 어려워”](#)
국민일보_2026.9.25.
- [제111회 총회총대 설문조사, “교인 감소보다 무서운 건 신뢰 하락”](#)
기독신문_2026.9.23.
- [교세 감소폭 다시 커져… 합동 1년 새 12만명이나 감소](#)
기독교연합신문_2026.9.19.
-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커지는 ‘가나안 성도’](#)
경향신문_2026.9.28.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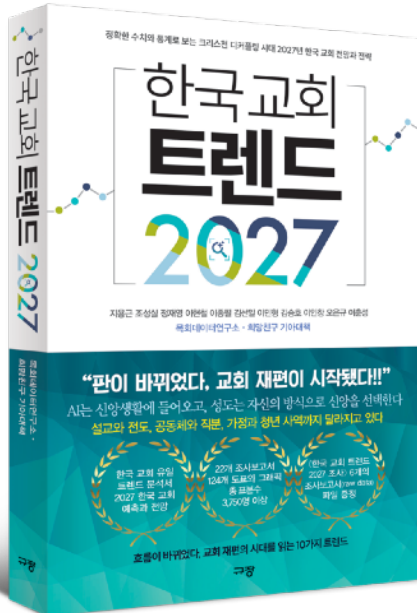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팀장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1. 프롬프트 크리스천
2. 노 타이틀 성도
3. DIY 신앙
4. 아날로그 영성
5. 리얼리즘 설교
6. 전도 리포메이션
7. 느슨한 공동체
8. 대 은퇴 시대
9. 두 번째 가정
10. 고밀도 청년 사역

「한국교회 트렌드 2027」 책 구입 안내

이번에 새롭게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7」은 저희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뜻을 모아 준비한 다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번 책은 담임목사, 일반 성도, 청년부 사역자 등 한국교회의 다채로운 현장을 담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고,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집필에 참여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제(트렌드)를 엄선해 담았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